

팀파땡에서 온 그대 ★

태국에서의 마지막 5개월 간의 기록 >>> 그 네 번째 이야기



목차

이렇게나
많아?!

6월 일정

VISA TRIP to Malaysia

홈스테이 에피소드

탐파툽의 하루

350PPM 캠페인

탐파툽 학교의 작은 운동회

개인 수업 코너

와이 크루

Farewell Party

개인 에세이

6월 일정

June 201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Malaysia VISA Trip.	2.. Malaysia VISA Trip.	3.. Malaysia VISA Trip.	4.. Malaysia VISA Trip.	5..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6..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7.. Stay with Host Family & Leaning Cultural in the Village.
8.. Stay with Host Family & Leaning Cultural in the Village.	9..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10..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11..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12..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13..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14.. Stay with Host Family & Leaning Cultural in the Village.
15.. Stay with Host Family & Leaning Cultural in the Village.	16..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17..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18..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19.. RaonAtti Campaign Tree Planting's Day. (350PPM).	20..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21.. Stay with Host Family & Leaning Cultural in the Village.
22.. Stay with Host Family & Leaning Cultural in the Village.	23..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24..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25..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26..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27..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28.. Stay with Host Family & Leaning Cultural in the Village.
29.. Stay with Host Family & Leaning Cultural in the Village.	30..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1.. Field day With students.	2..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3.. Farewell Party In School.	4.. Back to Sankhampaeng YMCA.	

WELCOME TO



VISA TRIP to Malaysia





VISA TRIP

5월 보고서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라온아띠 태국팀은 무비자로 출국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는 90일 이상 태국에서의 체류가 불가한 상황!!! 그리하여 우리는 이전에 태국팀과 다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VISA TRIP**을 떠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는데..

VISA TRIP을 떠나는 첫날 우리는 아침 7시 이른 시간에 치앙마이 공항으로 출발했다. 여행이라는 설렘과 비자연장이라는 스트레스를 함께 견디고 비행기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말레이시아 라온아띠 출신이신 은솔 간사님 덕분에 우리는 말레이시아 YMCA 호텔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첫날 딱히 일정이 없었던 우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관광명소인 KLCC 타워 방문을 했다. 압도적인 높이에 우리는 감탄 밖에 나오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오랜만에 보는 한국 음식점의 반가움에 고민하지 않고 들어가 1인 1.5인분을 먹고 호텔로 귀가하였다.





VISA TRIP

다음날 우리는 말레이시아 YMCA의 아이린의 도움을 받아 태국 대사관을 찾아가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태국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아침 9시라는 이른시간에 도착한 우리였지만 이미 더 일찍 와 기다리던 사람들이 더 많아 무려 2시간이 넘게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애초에 우리의 걱정과 달리 비자 신청 절차상에 인터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예상 답변까지 준비한 우리는 허탈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자 신청을 마치고 우리는 간단한 점심 식사 후 아이린의 도움을 받아 부킷빈탕 이라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명소에 갈 수 있었다. 부킷빈탕은 쇼핑몰 밀집지역으로 고가의 명품들이 많은 백화점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가난한 라온아띠 태국팀은 그저 구경만 하다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소문이... 우리는 오랜만에 보는 화려한 야경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VISA TRIP

VISA TRIP 3일 째, 다행이 우리는 태국 대사관으로 부터 비자를 받아 정해진 귀국 날짜 8월 5일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운아띠와 태국 YMCA 스텝들을 극심한 스트레스에 몰아넣었던 비자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 되어서 마음이 편하고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비자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통째로 시원하게 날려보낼 수 있었다. 짧지만 보람찼던 힐링 타임이라고 할까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쿠알라룸푸르 YMCA 스텝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다. 잠시나마 우리를 관광객?으로 착각하게 만든 말레이시아 VISA TRIP 좋은 경험 이었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가 말레이시아 머무는 기간 동안 우리 라운아띠를 보살펴 주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YMCA의 아이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이린 계신 우리 라운아띠 태국팀은 다들 배우같이 잘생기고 예쁘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다.

(분명 몇몇 단원은 짝릴 것 이다.)





홈스테이 에피소드



Ma-Yom(한승훈)의 가족 EPISODE

많은 이야기가 있는 홈스테이지만 굳이 한 이야기를 말하자면 직접 물고기를 잡아 구워먹었던 일이다. 난 난생처음 민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했다. 우리 집은 집에서 5분 거리에 물고기 농장과 닭 농장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수의 물고기, 하지만 한 번도 잡아볼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잡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상외로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 그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순간 나는 정말 맛있겠다!!!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피범(삼촌),갯뽕(동생)와 함께 화로에 불을 피우며 맛있게 익을 물고기 구이를 생각했다. 화로의 불이 달아오르고 생선을 굽기 시작했다. 생선의 겉면에 소금을 뿌리고 물고기를 구웠다. 정말 큰 물고기 크기 덕분에 한 번에 많은 물고기를 구울 수 없었지만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기다리는 묘미가 정말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었다.(한국에 돌아가면 낚시를 해 볼 생각이다) 내가 직접 잡지는 않았지만 직접 구운 생선을 가족들과 다 함께 나눠 먹으며 마음이 구워서 더 맛있다는 삼촌의 농담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다. 정말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Ma-prang 홈스테이

Episode 1 * 가족 사진전

When? 2014.07.03

Where? 마쁘랑네 집

(학교 바로 뒤 도보 2분. 지름길에 벌이 자주 출몰하니 조심하세요.)

Prize? 보고서를 보고 있는 당신은 FREE!

홈스테이를 처음 시작할 즈음에, 각자의 호스트 패밀리와 가족 사진을 찍었었다. 그 당시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 논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사진을 찍자는 말에 “지금 나 안 이쁜데 ㅠ ㅠ”라며 손사래를 치셨다. (귀여운 우리 엄마^^) 그렇지만 보고서에 올릴 가족 사진이 꼭 필요했기에 사진 촬영을 강행했다는 슬픈 소문이...

그래서 홈스테이를 마무리 할 때, 엄마가 가족 사진을 다시 예쁘게 하고 찍자며 태국 전통 옷을 장에서 대량 꺼내시더니 야밤에 패션쇼 한 번 하셨다. 우리 엄마는 아직 소녀였다. 그렇게 떠나기 전 날, 포토그래퍼 망쿯을 섭외해 다시 한 번 가족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재미있어했기에 집 사진, 가족 사진, 인물 사진 등 많은 사진을 찍으며 함께 추억을 남겼다. 헤어지던 날, 찍었던 사진 2장을 학교에서 인쇄하고 그 종이에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왔다. 마지막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었기에. 크.. 또 한번 눈물 나기 전에.. 자, 그럼 감상하시죠!





E
 P
 I
 S
 O
 D
 E
 2
 *
 탐
 파
 평
 나
 들
 이

‘탐파평’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그 중에서 ‘탐’은 ‘동굴’을 뜻하고, 이 마을을 대표하는 유명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다. 처음 홈스테이에 왔을 때부터 엄마가 일을 쉬는 날인 일요일에 이곳에 함께 가자고 했었다. 어느 한가로운 주말, 엄마와 두 동생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유후~♪) 동굴에 놀러 갔다. 손전등 가져오는 것을 깜박해서 동굴 안은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그 둘레를 걸으며 아름다운 주변 풍경과 불교 문화를 볼 수 있었다. 일상의 지루함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시간이랄까! 동굴 탐방을 끝내고 오후에는 엄마가 일하시는 우유 공장에 가서 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우유 만드는데 과정도 보고 전문 인력이 아닌 나는 정확히 우유 2,789개를 포장하며 매우 엄청 대박 아주 진짜 완전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다.





Mang-Kud의 가족여행 편 제 1부

부제 : 치앙라이에서 차로 12시간이 걸리는 코랏이라는 도시로 취업된 뱀바안
(6월 14일 ~ 17일)



토요일 새벽 3시 출발
오후 3시 30분 코랏 도착



뱀바안의 직장 방문
(태양열 회사)



다음날 아침 6시
출~발! (피곤)



한국의 경복궁과 같은 옛 궁전



여왕의 방문지
여왕님께 절



왓(사원) 방문
절하고 올해 운세 확인
(올해도 Lover은 없대네요 ㅎㅎ)



왓



왓



왓 왓 왓

Mang-Kud의 가족여행 편 제 2부

부제 : 치앙라이에서 차로 12시간이 걸리는 코랏이라는 도시로 취업된 뱀안
(6월 14일 ~ 17일)



이곳을 처음 봤을 때
감동이었다.
무너져 가듯 쓰러져 있는 건물들과
구멍 난 벽들, 울퉁불퉁한 바닥.
건물이 지내온 시간을
그냥 그대로 지켜가는 것. 얼마나 멋
진지...



가장 좋았던 라오스 가까이에 있던 사원.
맨발로 길을 걷고 청설모가 사는 자연 속의 사원으로 아직은 불교가
어색한 나도 마음 편히 숨쉬다 온 곳이었다.



350PPM을 준비하기도 바빴 시점에 가족여행을 떠나게되었다. (...미안)

가족 여행 동안 정말 많은 일들과 감정들이 교차했다.

여행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차 안에서부터 식사를 할 때, 명소 구경을 할 때 등등.

6월 14일 새벽 3시, 치앙라이에서 코랏까지 12시간. 코랏에서 우든, 라오스... 6월 17일이 되는 새벽 2시, 치앙라이 도착. 나는 그저 좁은 차에서 잠을 자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도 자도 피곤했고 가족들과 계속 함께 있는 것에 불편함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꼈다.

오죽하면 350PPM 준비하느라 바빴 팀원들이 그리울 정도였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에서 딸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빠에게 연락을 했다. “여행은 재미있었어?” 라는 아빠의 물음에 그냥 나도 모르게 “재미없었어.”라고 대답했다. 아빠는 “재미가 없어도 즐길 줄 알아야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즐기지는 못해도 즐겁지 않은 티만 안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는 가족여행은 ‘즐기지 못할 건 또 뭐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누가 봐도 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아는 도시라고는 방콕, 푸켓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같은 익숙한 내 동네 뿐이었던 내가 언제 이 넓은 태국 땅에서 그 먼 도시까지 가보겠는가. 또 언제 그 좁은 차 안에서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보겠는가.


돌아가며 운전하느라 고생 많으셨던 아빠와 남동생 뱀, 좁은 뒷자리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엄마와 뱀아. 나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주신 우리 가족에게 컵쿤카(감사합니다)

권도완 홈스테이 EPISODE

내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꼽으라면... 꼽고 싶지 않다. 하루 하루가 에피소드 였으니까. 승훈이가 장난스레 던진 말... '형 집은 하루 하루가 에피소드지.' 사실 정말 1달 반을 살아가며 하루 하루가 에피소드였다. 술을 좋아하시는 우리 나콘 아버지 때문에 2주 연속 함께 술을 먹기도 했고 아버지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구경 다니며 바나나를 까먹은 날도 있었다. 동생과는 게임을 하며 서로가 자기보다 더 못한다며 놀리기도 했고 함께 축구를 하기도, 축구 경기를 구경 하기도 했다. 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다.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한 번은 한국에 복통도 있냐고 하시길래 당황스러워하면서 순간 고민하는 내 모습을 보며 식구 모두가 웃음에 빠진 적도 있었다. 우리 식구와 마지막 밤이 되는 날은 다음 주가 내 생일이라는 걸 기억해주시고 나 몰래 생일 케익과 선물을 준비하셔서 깜짝 파티를 해주셨다. 그리고 비싼 레스토랑 집에 가 생일 축하한다며 성대한 만찬을 즐기기도 했다. 이 밖에 내가 불의 사고로 다쳐 병원에 함께 가기도... 맘이 아프셨는지 안쓰러워하시는 아버지를 보기도 했다.

하나 하나씩 서열을 매겨가며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결정하라면 결정할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이 모든 에피소드를 함께 해 준 식구들에게 정말 감사하단 말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식구 모두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었기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관심이 없었다면 할머니께서 한국어를 배우시지도... 복통이 있냐고 물어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떠날 때, '사랑해요, 또 만나'라고 한국어로 기억하시는 우리 할머니, 몸 아픈 곳은 없느냐고 물어시며 술을 권해주는 우리 아버지, 마지막 날 아침 내 방에 들어와 자기는 학교 간다고 잘 지내라고 껴안으며 글썽이는 우리 동생, 학교에 출근도 안하시고 나를 배웅해주신 우리 어머니 모두를 잊을 수 없고 보고 싶다. 내게 다시 이 집에서 에피소드를 꼽으라면 말하고 싶다. 한달 반 동안의 함께한 삶이라고.



A group of five young boys, likely students, are sitting on a lush green lawn. They are all wearing matching school uniforms consisting of a yellow short-sleeved shirt with blue trim and blue shorts or pants. They are also wearing brown socks and brown sneakers. Each boy is making a peace sign with his hand. The boy in the center is smiling broadly, while the others have more neutral or slightly grumpy expressions. A semi-transparent white banner is overlaid across the middle of the image, containing the Korean text '탐파평의 하루' (Tampapyeong's Day).

탐파평의 하루

탐파뎡 초등학교 UNIFORM

태국의 초등학교는 한국에서와 달리 요일마다 정해진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쓰아 낙리안: 가장 기본적인 교복, 월요일과 화요일에 착용하는 교복이다.

쓰아 스카우트: 우리나라의 걸,보이 스카우트와 같은 옷. 기본적으로 수요일에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기퇴치 캠페인이나 특정 행사가 있을 경우 또한 이 교복을 착용한다.

쓰아 팔라: 교복이 아닌 체육복. 목요일 스포츠 활동이 있는 날에 착용한다.

머험: 태국 북부지방의 전통 복장으로서 매주 금요일마다 선생님, 학생들이 모두 착용한다.



위: 쓰아 스카우트



왼쪽, 아래: 머험



위, 오른쪽 밑: 쓰아 낙리안
오른쪽 위: 쓰아 팔라

탐파뎡 초등학교의 하루 일과

얼핏 보아선 한국과 비슷한 초등학생들의 하루 일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시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탐파뎡 초등학교만의 시간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 많은 추억들을 쌓아가며 살아왔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간 따뜻했던 시간 속으로 천천히 녹아 들어보자.

— 07: 30 등교

07: 30 — 07: 50 청소 시간

07: 50 — 08: 20 조회 시간

08: 20 — 08: 30 양치 시간

08: 30 — 11: 30 수업 시간

11: 30 — 12: 20 점심 시간

12: 20 — 12: 30 양치 시간

12: 30 — 14: 30 수업 시간

14: 30 — 16: 00 머리 감기

자유 시간



탐파뎡 초등학교의 하루 일과

- 07: 30 등교

07: 30 - 07: 50 청소 시간

07: 50 - 08: 20 조회 시간

08: 20 - 08: 30 양치 시간

08: 30 - 11: 30 수업 시간

11: 30 - 12: 20 점심 시간

12: 20 - 12: 30 양치 시간

12: 30 - 14: 30 수업 시간

14: 30 - 16: 00 머리 감기

자유 시간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오전 7시 30분으로 정해져 있다. 소수의 학생들이 지각을 하는 편이지만... 벌을 준다거나 특별 관리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편이다. 등교가 모두 이루어지면 학생 별로 각자 맡은 구역의 청소를 맡게 되고 구역별 청소 상태를 검사하는 학생들 또한 나뉘어져 있다. 구역마다 학년이 섞여 청소가 진행이 된다.

청소를 끝마치고 아침 조회의 시간이 되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학년 구분 없이 4줄을 이루어 선다. 전교회장 6학년 '허디'의 외침 "탕뭇 짜 태우, 탕뭇 태우 똥"(앞으로 나란히, 차렷)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불교와 관련된 종교적 활동을 한다. 그리고 오늘의 태국어와 영어라는 특별 활동이 있는데 이는 하루에 한 단어씩 아이들이 태국어와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대표 학생이 나와 뜻과 발음을 가르쳐주는 활동이다. 추가적으로 조회의 마지막은 청소 상태 점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 담당의 학생들은 운동장을 2바퀴 씩 뛰어야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 선생님 혹은 라운아띠들의 하루 시작을 알리는 한마디가 끝이 나면 조회도 함께 끝이 난다.

탐파땡 초등학교의 하루 일과

— 07: 30 등교

07: 30 — 07: 50 청소 시간

07: 50 — 08: 20 조회 시간

08: 20 — 08: 30 양치 시간

08: 30 — 11: 30 수업 시간

11: 30 — 12: 20 점심 시간

12: 20 — 12: 30 양치 시간

12: 30 — 14: 30 수업 시간

14: 30 — 16: 00 머리 감기

자유 시간



5월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탐파땡 초등학교는 신체의 건강을 위해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기에 아침, 점심을 먹고 난 후 전교생이 양치를 하는 시간을 정해놓았고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양치를 하며 한결 청결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귀가 전, 하루 동안 더러워진 머리를 감겨주는 시간이 있다. 집에서 양치나 머리 감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에선 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위생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뜻이 깊은 하루 일과이다.

자유 시간이라 함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자유 시간이다. 머리 감기 전이나 후에 학생들의 부족한 수업 시간을 대체해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기도 했다. 자유 시간이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에 주의하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 있고 같이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운동 신경의 발달 혹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기 위해 힘쓴 시간이다.



탐파뎡 초등학교의 하루 일과

— 07: 30 등교

07: 30 — 07: 50 청소 시간

07: 50 — 08: 20 조회 시간

08: 20 — 08: 30 양치 시간

08: 30 — 11: 30 수업 시간

11: 30 — 12: 20 점심 시간

12: 20 — 12: 30 양치 시간

12: 30 — 14: 30 수업 시간

14: 30 — 16: 00 머리 감기

자유 시간



라운아띠들의 개개인의 특징을 살린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이다. 각 학년마다 1개의 반이 존재했고 1, 2학년은 학교에서 수업을 원치 않으셨기에 우리는 3-6학년의 반에 한 명씩 담임 선생님이 투입되었다. 애초 계획했던 한 사람당 한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기보다는 각자의 반에서 자신이 계획한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하되 서로의 수업을 도와주는 방식이 선호되어 계획이 변경되었다.

우리가 오기 전, 탐파뎡 초등학교는 왕의 교육 정책을 따르고 있었다. 국가에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시청하며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담임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다. 라운아띠는 왕의 정책에 기어드는게 걱정이 되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기꺼이 수업 시간을 할애해주셨고 부담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점심 시간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선생님과 우리는 다른 테이블에서 조금 더 맛난... 음식을 먹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식사를 하기 전 음식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외고서 식사를 시작한다.



350PPM 캠페인 ; Tree Planting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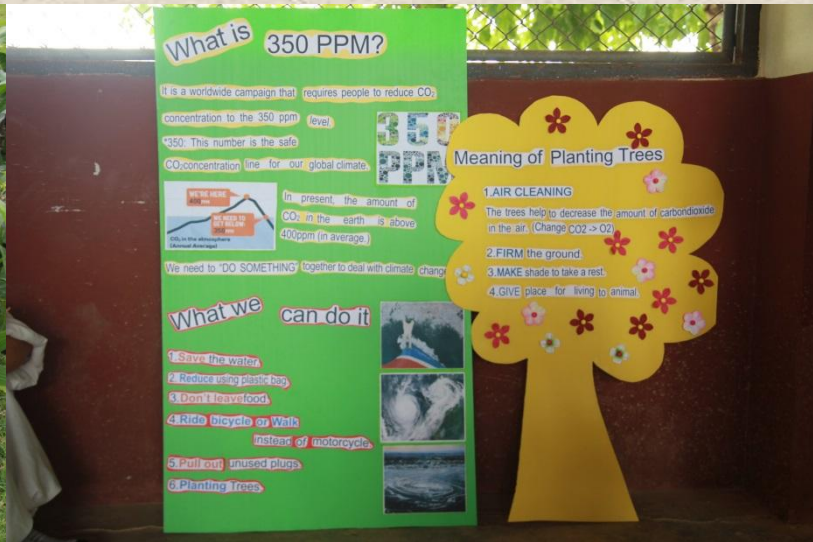
갑작스럽게 생긴 비자 문제(5월 보고서 참고)로 인해 6월 초 말레이시아 비자 트립을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태국팀의 350PPM 캠페인은 학교 일정에 맞춰 19일로 미뤄지게 되었다. 캠페인 당일 날 태국팀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나무 심기와 벽화 그리기였다고. 그 현장으로 GOGO!



캠페인 준비 과정

STEP 1. 코디인 피페와 피똥과 사전 회의를 통해 나무 심기에 쓰일 과일 묘목 70그루를 준비했다.

STEP 2. 350PPM이란 개념에 생소한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을 위해 설명 포스터를 만들었다. 350PPM의 의미, 현재 지구의 위험한 상태, 이를 위해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행동들(오토바이 대신 자전거 타기, 플러그 뽑기, 봉지 하나에 물건 담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을 포스터에 담았다. 또한, 나무를 심는 목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나무 심기의 의미와 이점에 대한 '나무 우드락'을 만들었다.



STEP 3.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간단한 350PPM 비디오를 제작하였다.

STEP 4. 벽화 미리 그려놓기. 학교 급식실 옆 자전거 세워두는 빈 공간에 나무 기둥들을 그리고 350PPM 바디페인팅을 위한 현수막에 '350PPM'의 글자를 새기고 오렸다.



STEP 5. 행사의 전체적인 이동 경로를 그려보며 리허설 해보기.

캠페인 당일 타임테이블



08.30 – 09.00 AM

- Registration

09.00 – 09.30 AM

- Opening Ceremony:

* Tree Planting Day Report by a representative of 11th RaonAtti.

The Importance of Tree Planting and the Collaboration in Thai and Korean Youths.

* Opening Ceremony Speech by a director of Tam Pa Tong Primary School, Mr. Phudit Chunhapran

*A Traditional Korean Drum Performance by 11th RaonAtti

09.30 – 10.00 AM

- Break

10.00 – 11.30 AM

- Taking Group Photos

- Planting Trees with the Students' Families at their houses.

12.00 – 13.00 PM

- Lunch

13.00 – 14.00PM

- VIDEO Presentation: 350 ppm Stop Global Warming

- Painting Wall Activity with students.

14.00 – 15.30 PM

- Group Activities & Games: How to Save Energy.

15.30 – 16.00 PM

- Closing Ceremony

350PPM 캠페인

; 오프닝 세레머니 및 350PPM 설명



350PPM 캠페인 당일 아침,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의 참여 등록 시간을 가진 뒤 오프닝 세레머니를 진행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물 놀이를 탐파땡 마을에서 처음 선보였다. 유독 선생님들이 매우 좋아하셨다는.. 교장 선생님의 격려 말씀도 들었다. 이후 350PPM이 무엇인지, 나무심기의 이점, 캠페인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서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우리는 나무 심기, 바디 페인팅, 게임 등 활동적인 액티비티 위주의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이렇게 350PPM 캠페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정보 전달)이 따로 주어져서 의미가 있었다.

350PPM 캠페인 ; 그립 포토



오프닝 세레모니와 캠페인 설명이 끝난 후에는 그립 포토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아띠들의 입이 짝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웬 소방차(?)가 갑자기 오더니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마치 한 편의 액션 영화 촬영 현장에 와 있던 것 같이라며 그저 헛웃음을 지었고 “와” 소리만 연발할 뿐이었다. 최고의 사진을 찍기 위한 태국의 스케일에 또 한번 놀란 아띠들이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교생과 마을 주민들, Y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아띠들까지 수많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350PPM 캠페인 ; 나무 심기



그럼 포토 시간을 마무리 하고 나서, 나무 심기 활동을 시작했다. 각자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과일 나무 한 그루씩을 나누어 주었다, 집이 학교와 가까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 집에 가서 나무를 심고 오고, 집이 학교와 먼 경우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같이 자신의 나무를 심었다. 아띠들은 각자의 호스트 집에 가서 가족들과 나무를 심었고,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과 함께했다. 탐파땡 마을의 공기가 더 깨끗해지고 풍성한 과일들로 더 예뻐하기를 바라~



350PPM 캠페인 : 바디 페인팅



맛있는 점심을 먹고 우리가 준비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몸을 풀 뒤, 학교에서 지저분하게 방치된 급식실 옆 벽면을 아이들과 함께 벽화로 채워 넣는 활동을 했다. 아이들의 손바닥에 다양한 색의 페인트를 문혀 벽에 찍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아이들 모두가 직접 자신의 손 도장을 벽면에 찍으며 나무와 350PPM 글자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손바닥에 페인트를 문혀서 찍는 행위는 '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350PPM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키자고 다 함께 약속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다 완성하고 나니 벽화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모두가 뿌듯해했고 아이들도 활동 자체를 즐거워해서 너무나 성공적인 활동이었다. 시간이 남으면 나무에 각자의 소원을 적어 넣어 이 날의 활동을 마무리 하기로 예정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시간이 남지 않아 다음 주에 있을 단체 수업을 이용하여 함께 활동하기로 하고 캠페인을 마무리 하였다.

캠페인 후 우리의 자체 피드백



* 애초에 주된 활동을 나무 심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시간의 제한으로 각자의 집에 각자 스스로 나무를 심게 되면서 학생들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가 줄어들면서 나무 심기의 활동이 비중이 줄어들어 아쉬웠다.

*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하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 모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이들에게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 것도 아니지만 YMCA의 홍보효과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셨다. 활동의 기획, 포스터와 영상 제작, 페인팅 작업을 위한 사전 현수막 제작 등의 큰 활동들은 충분히 준비하였지만 이에 너무 초점을 두면서 홍보와 같은 세밀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점이 아쉽다.

* 페인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계획했는데 사전에 페인트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당일 페인트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는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사용하지 못하는 색깔도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다.

*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소 시크하셨던 선생님들도 사물놀이며, 페인트 작업을 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즐기고 웃어주셔서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이들이 어려서 350PPM과 관련된 자세한 지식을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제 지구와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뿌듯한 활동이었다.

* 350PPM 캠페인을 기획하였는데 다과를 먹을 때 생기는 다량의 쓰레기와 페인트 작업을 하며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을 생각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1인 1 주스 팩을 준비했는데 이와는 달리 대용량의 주스를 사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개인의 컵에 담아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면 쓰레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있었다.

탐파뜨딩 학교의 작은 운동회!

국내훈련 때부터 젊은 피의 태극팀을 강조하며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운동회를 뽑았던 우리!

치앙라이 탐파뜨딩 학교의 아이들을 마주하면서부터 운동회 일정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결국 수업들과 여러 행사들, 학교 일정들에 밀리고 밀려 우리가 산캄펑으
로 돌아가기 3일전인 7월 1일 화요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운동회를 개최했다.

우리 태극팀은 각자 하고 싶은 운동회 종목들을 모아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고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선발했다.

아침 9시, 가위바위보를 통해 모든 학년을 섞어 땡모(수박)팀과 삼파죏(파인애플)팀
, 두 개의 팀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신나는 체조(라 쓰고
댄스라 읽는다)를 함께 추며 운동회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종목은 '보물찾기' 였다. 전날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텅 빈 학교에 남아 숨긴 +0, +1, +2, +10가 쓰인 50개의 종이를 아이들이 찾는 방식이었다. 아이들은 학교 곳곳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찾아 다녔고 우리도 모르게 선생님들께서도 빨간색의 보물종이를 숨겨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에는 빨간 종이는 미궁 속으로.....





두 번째 종목은 '꼬리잡기'로 각 34명과 33명의 두 팀을 길게 이어 머리는 1학년이, 꼬리는 6학년이 맡아 진행되었다. 줄이 계속 끊기고 아이들이 넘어지고 싸움도 나서 꼬리를 두 개로 나누어 다시 경기를 했고 땡모팀 1번 줄과 삼파콧팀 1번 줄이 경기를 할 땐 땡모팀 2번 줄과 삼파콧팀 2번 줄은 응원하는 형식으로 바꾸었다. 제대로 승부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집요한 경기가 계속되었지만 아이들은 그것마저도 즐겁게 참여하였다. 결국 목소리 큰 땡모팀의 승리로 끝난 꼬리잡기였다.



세 번째 종목, '4인 5각'은 키를 맞춰 5명씩 다리를 묶어 경기하였는데 저학년 여자아이들이 묶인 다리를 많이 아파해서 빨리 진행하기가 어려웠고 아이들의 다리를 하나하나 묶어주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린 경기였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 라온아띠들은 직접 2인3각을 보여줬고 아이들은 뜨거운 햇빛아래에서 친구를 응원하며 "능! 썩! 능! 썩!"(하나! 둘! 하나! 둘!) 열심히 달려주었다.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부터 '라온아띠를 잡아라!'주 운동회가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 라온아띠들은 등뒤에 커다란 스마일 스티커를 붙이고 발에 모터를 단 듯 뛰어다녔다. 남자 단원을 잡으면 200점, 여자 단원을 잡으면 100점으로 설명된 이 게임은 시작한지 5분도 안돼서 모두 잡혀 들어왔다. 2ROUND는 라온아띠를 잡아서 각 팀에 지정된 감옥에 넣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승훈 단원은 아이들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바닥에 누워 버텼고 도완 단원은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고 재연 단원은 삽파죇팀이 몰려들면 땡모팀을, 땡모팀이 몰려들면 삽파죇팀을 부르짖었으며 다슬 단원은 구석진 곳에 숨어들어가 꼭꼭 숨어있다가 결국 발각되어 제일 먼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종목을 선발전할 때, 여자 단원들은 너무 힘들 것 같다며 시작 전부터 자신 없어했고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직접 뛰면서 놀 수 있었던 가장 재미있고 즐거웠던 종목이었다.



운동회의 마지막 종목인 '짜깅 피구'는 저학년들과 고학년들이 같이 경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학년들은 1학년 교실에서 찰흙놀이나 소꿉놀이를 했고 라온아띠와 고학년들만이 함께한 게임이었다. 처음 키가 맞는 남녀로 짜깅을 만들어 주었는데 사춘기의 소년 소녀들은 많이도 수줍어했다. 또한 남자의 비율이 많은 고학년들로 인해 남은 남자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수비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에게 짜깅 피구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지만 우리는 또 직접 몸으로 보여주며 설명하였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흥미로워했다. 항상 발리볼만 하던 아이들에게 피구는 처음 하는 구기종목인 듯 했고 피구에 재미가 들린 아이들은 운동회를 맞춰야 하는 시간에도 계속 하자며 조르기까지 하는 등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다.



준비해온 모든 게임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모두 모여 두 팀의 점수를 계산했더니
삼파콧팀 1438점, 땡모팀 1440점으로 **땡모팀의 승리**였다.



우리가 준비한 선물은 공책과 연필이었고 승리한 땡모팀에게 나누어주었다. 그 후 삼파콧팀에게도 깜짝 선물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모두 즐거워했고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도 힘들지 않다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우리 라온아띠들은 몸이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 힘든 것도 잊고 함께 즐기, 어쩌면 우리가 더 즐거웠던 운동회였다.

탐파땡학교 언제나 즐겁게 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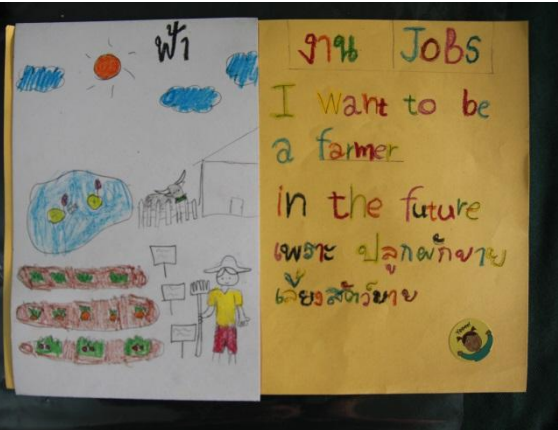
개인 수업 코너

6학년 바라기 Ma-prang(김재연) 선생님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사실 우리는 조금 놀랐다. 아무리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라지만, 아이들은 거의 모든 과목을 TV에서 틀어주는 강의를 시청하며 배우고 있었고, 그마저도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아 TV를 제대로 보는 아이들이 없었다. 그냥 수다를 떨거나, 낙서를 하고 있거나, 밖에서 뛰어 놀거나, 학교 근처를 서성거리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었다. 중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내 아이들이 조금 더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같이 그냥 노는 것. 좋다. 이 나이 때의 애기들은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한다. 하지만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했으므로.) 그랬기에 적어도 나와 수업하는 하루 이 시간 동안은 뭔가를 '가르치고' 싶었고, 그 지식이나 경험을 '남겨주고' 싶었다. 여러 가지 과목을 하기 보다는 영어 과목 하나를 잡아서 지속성 있게 수업을 설계하고 싶었고, 재미있게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영어를 가르쳤다.

개인적으로도 나는 한국에서 프랑스어교육과/영어교육과를 전공하고 교사를 꿈꾸고 있었음에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도 식고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이번 학교 교육 활동은 목말랐던 내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고 기대가 많이 되었었다. 교육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지 실험도 해보고,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새롭새롭 생각도 나고,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갈까, 어떻게 하면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수업을 이끌어낼까 등 고민을 많이 했다. 여기 와서 비로소 내가 관심 있어하는 것을 만났고, 벅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임했다.





마쓰랑 6학년 수업 일지

6월 8일	- Let it be 팝송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보다 아이들이 영어 읽는 것을 어려워한다. 6학년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겠다. - Let it be 라고 하는 부분만 목소리가 커진다 허허허. 노래를 즐기 보다는 영어 가사 읽는 법에 더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다. 기타를 배우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2절은 다음 시간에... - 오늘 수업은 정말 좋았다. 6학년들의 영어 수준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단어들은 몇
.		
.		
.		
6월 12일	스승의 날 행사	
6월 13일 (느낀게 많은 날 ☺ 행복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번 회화수업 단어 복습(과일/가족) : 빙고 게임 하기 - 오늘의 수업 What is this? / What is that? Who is it? 교실 안에 있는 사물들, 친구들 이름을 영어로 대답하기 ☑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사물 단어 + 가족, 과일 단어까지 추가하여 빙고 게임. 사은품은 한국 열쇠고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수업도 너무 좋았다. "팝송/회화/팝송/회화" 라는 틀을 짜서 수업을 설계하니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수업이 될 것 같다. - 학생들이 한 번 단어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전 회화 시간에 배운 단어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게임을 통해 다시 익힌다. 이 때도 물론, 배경음악은 Let it be!!!! 음악의 멜로

수업은 크게 '팝송 부르기'와 '영어 회화 표현 배우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며 진행했다. 나중에 가서는 팝송보다는 회화 표현에 치중을 해서 가르쳤지만. 팝송의 경우, 따라 부르기 쉬운(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태국어 버전 가사를 찾을 수 있었던) Let it be 와 Que sera sera 를 불렀다. 처음에는 영어 가사 따라 하는 것도 벅차해서 입도 잘 뻥긋하지 않던 애기들이 6월 말에 가서는 가사도 완벽 마스터, 멜로디도 완벽 마스터다. 손 씻을 때, 밥 먹을 때 우리가 MP3 들으며 허밍하는 것 처럼 자유롭게 흥얼거린다. 뉘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회화의 경우에는 애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의 것들을 주제로 했다. '나를 소개합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오늘 날씨 어때?', '취미가 뭐야?' 등의 주제로 관련 표현들을 가르치고 단어 게임이나 미술 활동을 접목시켜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학교에 오고 수업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작은 목표를 세웠고, 마지막까지 완성하면서 목표 달성을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매일 수업 일지를 작성하는 것.** 그날그날 무엇을 했는지, 애기들 개개인의 특성이나, 수업 하고 나서 느낀점이나 반성 등을 기록했다.

내게 유독 특별한 6학년 애기들!

6학년 애기들은 다른 학년에 비해 숫기도 없고 애교도 별로 없었다. 학년 짱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다고나 할까. 어떨 때는 소위 말하는 학교의 일진 같았다. 귀엽..아니 무서웠다. 망콧에게 애기는 3학년들이 때론 부럽기도 했었다.(ㄱ ㄱ ㄱ)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6학년 애기들이 오피스에 찾아와서 오늘은 수업 뭐 할거냐며, 언제 하나며 보채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애기들에게 나의 수업은 외국인이 잠시 진행하는 '특별 수업'이 아닌 '일상 수업'이 되어버렸다.** 아침 9시 반에는 당연히 내가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되었고, 나의 수업 방식에 익숙해져 어수룩한 태국말도 척척 알아듣는 애기들. 서로가 서로의 일상이 되는 것은 참으로 벅차고 행복한 일이다.

운동회를 하든, 350 캠페인을 하든, 재롱잔치를 하든 어떤 행사가 있어도 유독 내 애기들이 제일 이뻐 보이고, 제일 잘나 보였다. 마치 교차로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딱! 알아보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뭘 하고 어딜 가든 6학년 애기들이 내 눈에 돋보이고 날 미소 짓게 했다. 오죽 좋았으면 운동회 때 상대 팀의 6학년을 응원하기도 했다.(미안해 땡모팀...)

땡, 핏, 민, 마이, 파아, 허디, 논, 파, 쌍.

수업 둘 째 날부터 이름도 다 외워버렸다.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이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다.



Ma-Muang(권도완) “내 사랑 애기들아, 내가 보고 싶다 말해주렴! 한국어로!”

5학년 친구들의 수업을 맡았을 당시 어떤 수업을 해야할 지 고민이 많았다. 곧 중학교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내 수업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저 재미위주... 그 순간이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수업을 제외하더라도 함께 놀거나 혹은 밥을 먹는 시간에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데... 수업마저 놀이의 수업이 되어버리기엔 이 아이들에게, 또한 내게도 아까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식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렇다면 한국어 말고 수학이나 영어와 같이 좀 더 아이들에게 필요성이 큰 수업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들에게 난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더 알고 공부하게 된다면 날 잊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결국 난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결정했고 이 아이들이 내가 떠나더라도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 믿고서 수업에 임했다. 어찌보면 막연한 믿음으로 억지부린 나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열심히 배우고 따라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후회는 없다.

마지막 2주 간은 탐파평의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보고 보고 또 보고 싶어서 2, 3, 4학년의 수업에도 들어갔다. 특히나 내가 사랑에 빠져버린 2학년 친구들에게 좀 더 일찍 수업 들어가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다른 학년이 싫다는 건 아니고... 2학년이 조금 더 좋다고... 미안해요 5학년~ ^^...



내 사랑 장난꾸러기 5학년 애기들



2학년의 뱀과 언을 사랑하는 마무앙,
이를 질투하는 5학년 윈



마무앙의 짝사랑 2학년 여자 애기들

권도완 한국어 수업 4주 완성 특별 강의

피나 긴 시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자음과 모음을 알려주고 뜻은 모르더라도 한 단어 읽을 수 있는 실력까지 키우기를 목표로 수업을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알도록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1주. 한국어에 익숙해지기

: 한국어와 친해지기 위한 밑작업으로 단어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다. 초상화를 그리고 부위별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종이 접기를 하면서 종이의 색깔 별로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한국 동요 '곰 세 마리'를 가르쳐주고 이와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씩 가르쳐주었다. 빙고 게임 진행을 위한 숫자도 가르쳐주었다. 첫 주는 기본 1시간을 가르칠 예정이었지만 아이들의 과도한 열정 덕에 단체 수업이 있는 목요일을 제외하고서는 2-3시간을 기본으로 수업했다.



2주. 한국어 문장 이해하기

: 하루 10개의 단어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했다. 질문과 대답 간의 음 높낮이 차이, 그리고 높임말에 대한 이해. 그 날 몸이 아팠던 내게 아프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아파?' 혹은 '밥 먹었어?' 같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를 가르쳐 주었다. 숫자는 보고 읽는 수준에 달했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태국의 인사 대신 기본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ㄱ, ㅅ'의 발음이 없어 발음에 문제가 있었다. 계속해서 'ㄱ, ㅅ'으로 발음을 했으니... 그리고 'ㄹ' 밑받침 발음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웃지 못하고는 못 배길 재밌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다. 이를 고치기 위해 반복된 훈련을 했다.



권도완 한국어 수업 4주 완성 특별 강의



3주. 자음과 모음 이해하기

: 2주 째, 자음과 모음을 알려주어 단어에 대한 학습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길 목표로 했지만 캠페인 그리고 다양한 행사의 진행으로 수업이 미뤄지면서 3주 째에 들어서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 주었다. 이를 가르치며 확실히 쉬운 발음과 어려운 발음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합쳐 읽는 태국어와 방식이 비슷하여 아이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모두 다 가르치고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며 수업을 마무리 했다.



4주. 문장 읽기

: 마지막 수업, '나를 잊지 말아요, 보고 싶어요'를 가르치며 문장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음 날이면 떠나야 했기에 순간 가슴이 울컥하기도 하고 힘든 수업이었다. 글을 쓰는 연습도 했는데 뽀뽀 그림을 그리듯 열심히 쓰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 수업에 대한 욕심 부리지 않고 아이들이 여태 잘 따라와주어 고맙고 인사말, 그리고 숫자에 대해 확실히 기억해주어 뿌듯한 마무리 수업이었다.



특별 수업

: 4학년, 승훈이를 대신해 하루 아이들과 개구리를 접어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2학년, 마지막 2주 동안 수업을 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 전까지 라온아띠와 수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 동요와 인사말을 가르쳐주었고 어린 아이들의 지적 발달에 도움이 될 종이 접기 수업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3학년, 한국어 수업보단 영어를 위주로 가르친 다슬이를 대신해 한국어를 가르쳤다. 다른 학년에 비해 이해도가 높은 학년이라 5학년의 수업을 얼추 비슷하게 진행하였다.

권도완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윈, 디우, 뱀, 푹, 프에, 프엠, 짜엣, 아이, 논, 이유, 내, 프앙, 빅, 쟀싸이, 엄, 폐 16명의 친구들을 항상 사랑할 수는 없었다. 수업에 집중은 안하고 떠났으며 게임하자고 징징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특히 화도 나고 수업을 그만하고 싶었다. 하루는 '그래 좋아, 너네 내말 안 들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해버리고 수업 30분 만에 교실을 나갔던 적이 있다. 그 당시에 화가 났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잘한 짓인지... 계속 생각해보았다. 그리고는 점심 시간이 되었고 또 다시 웃으며 내게 다가오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 행동을 후회하게 되었다.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한국어를 내 주관대로 가르치려고 한 점, 내가 좋아서 그런 것 일텐데 난 더 좋아하고 잘해주지 못한 점 하나 하나가 미안했다. 특히 매일 장난만 치고 말도 안 듣던 녀석이, 마지막 순간까지 울지 않을 것 같던 그 한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시렸다. 지금도 미안하고 후회되는 것은 헤어지기 직전까지 우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제대로 달래주지 못한 것. 늦었지만 이곳에서라도 사랑한다 말하고 싶다. 미안하고 사랑해



Ma-Yom(한승훈), 친구 같은 선생님

처음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맡은 4학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곰곰히 생각했다.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아이들은 한국어 수업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거기다가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수업이기도 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문장(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을 가르쳤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이 접기를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고도 했고, 한국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내가 맡은 4학년은 12명의 학생 중 여학생이 단 한 명이었다. 남학생 11명의 혼자 상대하기 어려웠다. 항상 장난만 치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금 엄하게 대하기도 했다.(천진난만한 아이들은 그저 장난 치는 줄 알고 같이 장난을 쳤다는 소문이...)^^





아이들과 학교에서 함께 밥 먹고 운동을 했던 6월은 정말 재미있었고 행복했었다. (아이들이 장난이 너무 심해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나는 아이들과 함께 6월을 보내면서 난 선생님이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형, 오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무실에서 앉아 있기 보다는 운동장으로 나와 아이들과 함께 축구, 배구, 잡기놀이 등을 하면 놀았다.(늠어서 그런지 아이들의 체력을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한국어를 기억해 주기 보다는 그저 Ma-Yom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줬으면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가르친 한국어를 잊지 않고 매일 아침 “사와디캅”이 아닌 “안녕하세요”라고 아침인사를 해주었다. 정말 나는 홈스테이를 진행하며 학교에서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한 번 잠을 자기 전 문득 ‘그저 한국인 대학생인 내가 언제 한 번 학교에서 선생님이자 동네 형, 오빠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그대 남은 기간 열심히 후회 없이 지내다 가자 라는 생각을 했다. 짧았던 학교에서의 생활 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나를 잊지 않길.

똑똑한 3학년들의 선생님(그냥 옆집 언니, 누나) Mang - Kud(소다슬)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다. 그런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한 달 반 동안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한국인 언니(누나)가 가르쳐주는 1시간을 그저 재미있어했고 새로워했다. 물론 매일 팝퍼닥(종이 접기)을 외치긴 했지만.

내가 맡은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정말 똑똑하다!

부족한 태국어로 말을 해도 바로 이해하고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는!! 혹시 천재들이 아닐까?

자랑을 좀 하자면 한국의 숨겨진 애국가라는 '곰 세 마리'도 우리 3학년이 제일 잘한다! 다른 학년 보다 제일 먼저 가르쳐주었는데 노래의 뜻도, 가사 속 단어들도 다 이해하고 춤도 제일 잘 추고 노래도 제일 잘하고 다른 학년도 가르쳐봤지만 종이 접기 또한 우리 3학년이 제일 잘한다.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언니(누나)"를 외치는 건 우리 3학년 뿐이다. 이걸 다른 단원들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 덕분에 조금은 쉬웠던 나의 수업시간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고 수업 계획을 짰다.
하루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과 선생님께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묻는다. 선생님께서는 당연하게 영어를 원하시지만 아이들은 당연하게 종이 접기를 원한다. 나는 선생님께 영어와 종이 접기를 같이 가르치겠다고 말씀 드린 뒤 선생님 몰래 영어수업은 조금만 하고 아이들과 종이 접기를 몇 번 했었다. 한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만 머무는 나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 영어나 한국어를 가르치더라도 무조건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어서 재미있는 영어, 한국어 교육 영상을 보여주거나 빙고 게임, 그림 카드 게임, 그림 맞추기 등등 참 많이도 그리고 만들고 고민했다. 한번은 매번 종이 접기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하도 싸워서 **“3학년은 종이 접기 안 해! 나는 너희가 맨날 울고 화내서 안 행복해!”**라고 화를 냈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또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 너희가 즐거우면 됐지. 하하



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잘하는 친구에게는 “추어이 프안(친구 도와줘)”,”
러 프안(친구 기다려줘)”를 아끼지 않았고 뒤쳐지는 친구에게는 엄지 손가락과 하이파이브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각자가 잘하
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고 나도 그것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 같다. 여자아이들은 암기능력이나 예술적인 부분
에서 많이 뛰어나다. 그에 비해 남자 아이들은 영어 단어를 이용한 빙고 게임에서 월등한 실력을 보여줬다. 아이들은 모두 잘하
는 것이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용기를 얻었다. 나도 잘하는 것이 분명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고 나도
아이들처럼 맑게 웃을 수 있다고.

종이 접기를 제일 잘하는 **나인**과 꼼꼼한 **본**, 한번 배운 건 잊지 않는 **파이**와 **케이**, 빙고 게임을 잘하는 **보**
과 **센**, 영어단어를 빨리 잘 따라 쓰는 **핀**과 **인크**. 그리고 부족한 나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셨던 **크루 누**.
이 작은 천사 용명과 선생님 덕분에 더 행복했던 내 6월이었다.



탐파땡 초등학교의 스승의 날

‘와이 크루’

태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날이 존재한다. 이를 ‘와이 크루’ 라고 하는데 선생님께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졸업생들이 찾아오는 광경도 지켜볼 수 있었다. 이 날은 태국 전통의 그릇에 모래를 담아 그 위를 꽃으로 장식하고 선생님께 증정한다.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 생각된다. 한국에선 많은 학생들이 교실 칠판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반면, 태국은 좀 더 엄중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꽃으로 장식된 그릇을 증정할 때, 학생들은 바닥에 발을 한 쪽으로 가지런히 하고 선생님께 엎드려 절을 한다. 이는 감사함과 존경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라운아띠들도 선생님께 드리기 위해 아이들의 장식을 도왔다. 그래서 라운아띠는 선생님으로서 꽃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우리도 함께 꽃과 절을 받으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이에 우리는 학교에서의, 아이들로부터의 선생님으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재상기할 수 있었다.



Farewell Party With our Lovely Children

탐파평 학교에서의 생활 마지막 날, 서로의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 어김 없이 찾아오는 작별의 표시로서 파티를 열었다. 평소 교복을 입어 몰랐지만 평상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정말 어리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 마치 소풍을 온 아기들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더욱 산뜻하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주일 동안 우리 몰래 준비해 온 춤을 선보이며 우릴 즐겁게 해주었고 우리 우리가 준비한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마지막으로 '흔들흔들', '토요일 밤이 좋아'의 열띤 춤을 같이 추며 아이들의 앙증맞은 춤에 보답했다. 공연 사이사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과자 빨리 먹기 게임', '풍선 터트리기 게임' 등의 게임도 진행했다. 어린 아이라고 봐주는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임하였지만 패배한 경우도 있었...

파티가 끝나고 마지막이 될 것이란 생각에 많은 아이들이 바로 울음을 터트렸다. 울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다음 날,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 아이들과 심지어 선생님까지 우리들은 아픈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며 눈물을 흘렸어야 했다. 사랑하는 아이들... 잊을 수 없을 거다.





개인 에세이

Ma-prang (김재연)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한 느낌점은 이미 보고서에 충분히 담긴 것 같아서 홈스테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기처럼 에세이에 담고자 한다.

그냥 아주 평범했던 하루의 저녁. 저녁을 먹는 데 갑자기 나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누가 라온아띠 아니랄까봐...) 아버지는 매일 밖에 나가서 집 주변 농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반주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나랑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 아니셨다. 그런데 오늘 술이 좀 취하셨는지, 취중 진담을 내게 말씀하셨다. 나눔의 요지는, 내가 이 집에 와서 행복한 건지 아닌지 걱정이 계속 되신다는 거였다.

이곳에 와서 나는 밥을 전에 비해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다. 엄마 음식 솜씨도 뛰어나고 태국 음식에도 적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맛이 없어서 조금만 먹은 것은 아니었다. 그냥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항상 엄마는 그런 내게 “마쁘랑~ 밥 많이 좀 먹어~”, “배부르 때까지 먹어.” 라고 하시며 많이 머금 두번 머금 계속 머금을 외치시곤 했다. 내가 아무리 밥을 먹으면서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요!”라고 말해도 먹는 양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 밥이 맛이 없나? 그럼 뭘 해줘야 할까? 하며 고민하셨다는 것이다. 너가 밥을 많이 먹으면 아버지만도 행복하고, 너가 밥을 조금 먹으면 엄마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다고 하셨다. 좋아하는 반찬, 싫어하는 반찬을 말을 하고,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해주시겠다고 하며 나에게 대한 걱정과 함께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했다.

또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 가정이라서 그런지 다른 집처럼 가족 단위로 활발하게 어딜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았다. 쇼핑을 나가거나, 축구를 보러 간다거나, 낚시를 간다거나, 멀리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거보다는 그냥 집에서 계속 생활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껴서 나가곤 했었다. 나에게 우리 집도 있지만, 다른 아띠들의 가족도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스스로도 6월에 힘든 시기를 지나며 답답함을 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언제 한 번 다슬이네가 야시장을 간다고 해서, 나도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같이 가자고 했다.(결국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못갔지만..)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다슬이네랑 같이 야시장을 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딸을 주는 것 같아 마뽀랑”이라고 말하셨다. 그런데 사실 나는 뭐랄까, 마음이 쩡하기 보다는 그냥 그랬다. 나도 가족들이랑 이런 저런데 많이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쌓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조금 실망을 했었고, 다른 집이 부러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집과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말씀하니까 나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라는 말씀이신가...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빠가 나눔(?)을 하면서, 야시장을 가고 싶으면 아빠한테 말을 하라고 하셨다. 어떻게든 갈 수 있게 해준다고. 그리고 내일 마을에 있는 교회 가는 것도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까지 말씀하셨다.

내가 밥도 많이 먹지 않고, 어느 집에서 어디 간다고 하면 껴서 같이 나갔다 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았다. 자기 전에 두 분이서 내 걱정을 하셨을 모습이 상상되면서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다.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던 이 나눔 시간은 결국 마뽀랑이 우리 집에 와서 행복한지, 괜찮은지, 울지는 않는지, 나에게 대한 걱정 뿐이었다. 그 이후 나는 밥도 일부러 더 많이 먹고, 어디 가고 싶으면 다른 집에 껴서 가기 전에 엄마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먼저 말을 하게 되었다.

이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짧은 시간인데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를 그저 잠시 돈을 내고 홈스테이 체험하다 가는 외국인으로 보신 게 아니었다, 그랬다면 이런 나눔도 못했겠지. 서로 오해했던 것들, 불만이었던 것들,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나누며 얘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내겐 진짜 가족이었고, 어느 하나 특별할 것 없던 그 하루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

Ma-Muang(귀도완)

정말 잘 살다 왔다.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가족 모두 내게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었고 우리 학교의 아이들 또한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주었다. 행복했지만 그래도 후회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후회되는 단 한가지, 아이들과 더 함께 하지 못한 것. 그것 밖에 없다. 아이들을 조금 더 보기 위해 청소를 하고, 아침 조회 시간에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 함께 서있고 집에서 하면 될 양치를 학교에서 했다.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수업 참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더 많이 하려고 했다.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을 순 없을까... 고민을 하고 밥을 먹을 때 선생님들과 먹지 않고 아이들의 테이블로 의자를 옮겨 밥을 먹은 적도 있다. 교무실에 가만히 앉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아이들 때문에 태국어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태국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한자 한자 가르쳐주며 내가 기억해내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이들의 편지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치야라는 2학년 학생과 집 사이의 담 하나를 두고 1-2시간 얘기를 나누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서툴지만 내가 태국어를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웃기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찾아와 내가 집에 있나 찾아보는 그 아이의 행동이 웃기고 정말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이 많은 일들 모두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더 후회되고 가슴이 아프다.

함께 있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그 아쉬움과 한쪽 가슴이 비어있는 듯한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헤어질 것을 미리부터 생각했기 때문인지 행복했지만 아이들의 웃음과 내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슬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언제 다시 이 아기들의 웃음을 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될 기약의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슬프다는 생각 없이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싶었다. 아이들이 다쳐서 울고 싸우고서 울 때면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아프지, 아프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그 작은 아이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했다. 나로 인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이다. 아이들과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이 기쁘고 슬픈 두 감정의 공존 속에 있었다. 평일이 되면 학교에 가야 할 것만 같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도 슬프지만 이제는 한 편의 감정만 가지려고 노력할 거다.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떠올리고 헤어짐이라는 그 순간을 잊어버릴 거다. 고맙고 1달의 시간이 꿈만 같다!

Ma-Yom(한승훈)

6월

6월 한 달간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오직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다. 그 만큼 나는 6월 한 달 내 내 행복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살아가며 진짜 가족이 되었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며 웃을 수 있었다. 언젠가 한번 홈스테이 엄마가 내게 '우리 집 주변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Ma-Yom 잘생겼는데!! 그래서 내 아들이라서 잘생겼다 라고 했어'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울컥했다. 단지 집에서 밥이나 먹고 놀기만 하는 한국인일 뿐인 나는 그렇게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사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서 6월은 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주었다. 함께 물고기를 구워 먹던 날, 함께 고기를 구워 먹던 날들, 함께 축구장에 축구를 보러 갔던 날, 수많은 날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 기억이 기억하고 있다. 다시 돌아 가고 싶다...

휴식

나는 6월 한 달 동안 내게 육체적 휴식이 아닌 정신적 휴식을 줬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농장의 그 물침대에 누워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늘을 보며 내게 휴식 아니 '쉼'을 줬다. 이런 쉼이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나의 답은 '그렇다' 이다.

Mang-Kud (소다슬)

6월 내내 나는 행복도 힘들도 정점을 맛보았다. 홈스테이 가족과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고 홈스테이 가족과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진'인가? 생각까지 했다. 그리고 팀원에게도 말 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각자가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지내는데 어떻게 내가 내뱉는 말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을까.(나는 이런 문제 없는데 왜 애는 힘들다는 거야? 같은.) 만약 나라도 온전히 받아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뭘.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호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었다. 사실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조차 지치고 지치고 또 지쳐있었다. 너희도 그랬는지...

홈스테이

마음이 불안정해지면서 나는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다. 가족들과 대화도 적어지고 작은 농담에도 웃을 수 없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되돌릴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 도달해있었다.

한 달 반 가량의 홈스테이를 마무리하기 일주일 전 토요일, 엄마와 함께 저녁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께서 갑자기 "이 마을에 와서 뭘 했어?"라고 물어보셨고 나는 당연하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죠."라고 대답했다. 엄마는 "그리고 또?"라고 물어보셨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엄마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정말 더 이상 한 게 없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나름대로 음식 준비며 빨래며 집안일을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홈스테이 가족들에게는 '우리 집에서 놓고 먹는 한국산 식중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학교

마냥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다. 아이들이 미울 때도 있었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다. 수업 준비가 귀찮기도 했고 수업 중에도 울컥울컥 짜증과 귀찮음이 올라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6월 내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 덕분이었다. 사실은 밭다갈 때도 아이들이 웃어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었다. 너희 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내 표정이 어떨든 그냥 순수하게 날 안아주고 좋아해주는 너희가 있으니 6월은 겨우 버텼지. 시야가 좁은 나라서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해. 마지막 날 우리가 간다고 영영 울던 그 순수한 마음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탐파평의 67명의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